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광주자영업자들

최근 두 달 음식점 243곳 폐업 전통시장·대학가 등 매출 급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지역 음식점 243곳이 폐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곳이 늘어난 수치다.

동구 웨딩의 거리·북구 대학가 상가·서구 전통시장 업주들도 매출이 최고 8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결혼 관련업체 33곳이 모여있는 동구 웨딩의 거리는 큰 침체기에 들어섰다. 웨딩드레스 제작업자 정모(55·여)씨는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상담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웨딩매출이 70% 이상 줄었다. 의거리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거리를 오고가는 방문객 수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대표적 예물 중 하나인 귀금속을 다루는 상점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

귀금속점 업주 최모(60)씨는 “매출이 지난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난해 대비 8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몇몇 가게들은 대체 수입원을 마련한 상황이다.

양복점은 예비 신랑이 아닌 일반 손님들에게 초점을 맞춘 옷을 더 많이 제작하는 방식이다. 귀금속점은 취급하는 상품을 빨리 바꿀 수 없어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예비 부부를 도와 예식장 섭외·예복 제작 등을 돕는 결혼상담업체도 타격이 크다.

상담업체 업주 A씨는 “보통 예비 부부들이 혼인식을 올리기 전 가장 먼저 이 곳에 방문해 계획을 짠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올릴지 주저하는 커플이 많아져 지난 몇달 동안 신규 회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과 개강 연기로 북구 대학가 주변 상인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전남대 인근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4)씨는 “매출이 평소 대비 60% 아래로 급감했다. 이 와중에 개강이 2주 연기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막막하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영업을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대학가에 위치한 카페도 매출이 급감했다. 공부를 위해 카페를 드나들었던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카페 직원 유모(29·여)씨는 “방문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며 매출이 35%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첫 주말인 29일 오후 동구 충장로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파주에 위치한 카페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발길이 곧 매출로 직결되는 서구 전통시장도 큰 위기에 처해있다.

양동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강모(53·여)씨는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 20년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예전엔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양동시장을 찾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그 발길마저도 끊겼다”며 “당장 5년간 함께 해온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 너무 속상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 상인들도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상인 조모(63·여)씨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생선 재고의 선

도가 떨어져 손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도 80% 이상 떨어졌다. 인건비를 아끼며 추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추석 때도 매출 상승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번 명절이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광주상생카드 발급을 재차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시 단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첫 1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비슷한 골자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행정명령에도 대면예배 강행

1492곳 중 12곳 집합예배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신교단에 집합·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12곳이 현장에서 예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곳 중 11곳은 예배 제한 지침·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1곳은 고의로 예배를 강행해 고발 조치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집합·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지역 교회 1492곳 중 12곳(0.8%)이 집합 예배를 치렀다. 12곳 중 1곳인 광주 서구 모교회는 이날(교인 100여 명 집합 예배)과 지난 28일(70~80

여 명)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시는 명령을 연이어 위반한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곳은 교인 9명 이하로 대면예배를 했으나,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온라인 예배 지침상 방송 장비 활용 필수 인원 9명(목사 포함, 방역수칙 준수)까지 교회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11곳이 예배 제한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머지 교회 1480곳(99.2%)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다. 이 가운데 752곳은 예배를 취소했고, 728곳은 온라인 예배를 했다.

최이슬기자



2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자동차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확진자 다녀간 순천초, 전원 '음성'

순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일 63명 발생한 가운데 부모로부터 감염된 초등학생들이 다닌 학교로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8세 남자아이 두 명과 9세 여자아이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3명 모두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이었고, 한 명은 24일 하루 학교에 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순천 59번(전남 130번) 확진자는 해룡면에 거주하는 8살 남아로 순천 41번(전남 103번) 확진

자의 자녀다. 또 순천 60번(전남 132번)과 61번(전남 133번)은 각각 8살 남아, 9살 여아로 2명 모두 해룡면에 거주하는 순천 44번(전남 106번) 확진자의 자녀다.

시는 확진 아동이 방문한 신대초등학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29일 학생과 교직원 315명, 태권도장 4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30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순천에서는 이 외에 30일 오전까지 2명이 추가 확진됐으나 자가격리중이어서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야속한 코로나19...수학여행·야외체험학습 '올스톱'

수련활동 야외 안되고 강사초청 등 실내위주로

또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학창시절의 꽃'으로 불리는 수학여행이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심신수련과 호연지기, 사회성

에 큰 도움을 주는 야외 체험학습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혀 학교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고, 이마저도 원격수업으로 아예 백지화될 처지다. 3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

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을 2학기로 미뤄왔으나, 2학기 개학을 전후로 또 다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교육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

하는 2단계 행정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관련 지침상 수학여행 등 숙박형 수련활동과 야외 단체행사 모두 코로나19에 발이 묶인 상태.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부논의 끝에 9월 초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초·중·고교 수학여행비 보조금 42억1915만원(3만2222명)을 전액 삭감했다. **조인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